

## 마을간所得隔差와 行態的 要因分析

閔 尚 基  
責任研究員, 農政輿論室

- I. 問題의 提起
- II. 마을所得概念과 所得發生要因
- III. 研究方法
- IV. 分析結果
- V. 要約 및 結論

### I. 問題의 提起

韓國社會의 產業化過程에서 都市經濟體系로 農村經濟가 흡수·통합되면서 農業의 生產方式도 商業的 經營方式으로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農村經濟與件의 變化와 더불어 農村地域間에 농업체계와 유형이 전문화와 特化 경향을 보이면서 成長地域과 後進地域으로 地域分化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土地 利用과 作付方式을 위시한 農業生產樣式이 지역적으로 달라지면서 農家階層간, 地域간에 所得隔差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所得隔差現象을 마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表 1>에서와 같이 어떤 마을은 호당 所得規模가 5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260만원도 채되지 않는 등 마을간에 所得隔差現象이 두드러지고 있다.

表 1 호당소득규모별 마을분포(82년 말 소득기준)

소득 규모	260만원 이하	260~340만원	340~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마 을 수	64	10,165	24,480	328	35,037
구 성 비	0.2	29.0	69.9	0.9	100.0

資料: 内무부, 새마을운동통계자료, 1983, p. 49에서 재작성.

그렇다면 어째서 마을간에 이러한 所得隔差가 발생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여 어떤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하여 일찌기 또는 효과적으로 소득이 증대하였는데 반하여 다른 마을은 그렇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所得隔差를 야기하는데 있어서 촉진적 또는 장애적 요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요인이 마을내부적인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인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 마을간 소득격차와 관련하여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연구에서는 마을간 所得隔差에 작용하는 구체적 要因을 실증적으로 규명코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高所得마을과 Low所得마을을 分析對象으로 하여 資源利用과 관련한 價值·態度, 社會的相互作用, 리더십構造와 役割遂行 등에 대한 行態的, 社會的要因과 더불어 土地利用, 作物栽培類型, 所得構造등 經濟的要因에 대한 두 마을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所得隔差發生要因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要因을 分析함에 있어 本研究에서는 住民들의 行態的 要因에 중점을 두어 分析코자 하였는데 이는 마을소득은 마을주민들이 經濟行爲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마을내외의 상황을 규정하고 결정을 내리며,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하면서 새로운 意思決定을 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되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II. 마을所得概念과 所得發生要因

### 1. 마을所得概念

본연구에서 사용되는 마을所得은 그 마을에 거주하고 生計를 영위하는 住民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추계한 對人的 所得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마을소득은 그 마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그 주민이 어느 지역에서 經濟活動을 하였던가를 불문하고 단지 그 마을 주민에게 귀속되는 要素費用을 추계한 것으로서 이러한 所得概念은 內務部가 全國마을에 대한 所得水準을 파악하기 위해 197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簡易새마을所得調査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 2. 마을所得發生要因과 연계망

工業化・產業化로 인한 開放化로 經濟活動範圍가 확대됨에 따라 農村에서 非農業分野에 就業을 통해 農外所得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은 農村地域共同體의 규모가 한정적인 데다 社會・經濟的 勞動分化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의 주된 經濟活動領域은 農業生產이다. 따라서 마을의 所得增大는 마을이 어찌한 資源을 어느 정도 보

유하고 있으며 이를 資源을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活用하는가 하는 資源利用方式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資源利用은 또한 마을단위의 農業體系와 類型에 따라 다르며, 마을단위의 農業體系와 類型에 따라 마을의 所得成長이 영향을 받는다.

마을단위에서의 農業체계와 유형은 마을이 처해있는 氣條, 地形과 같은 自然的 要素와 市場여건 등 經濟的 要素, 도로, 교통조건, 文化, 歷史와 같은 社會・人文的 환경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한편 마을단위의 農業體系와 類型은 주민들의 상황여건에 대한 가치판단에 의한 資源利用에 대한 意思決定의 結果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知識과 經驗水準, 價值, 態度와 같은 行태적 요인에 따라 자원이용이 달라진다. 마을주민들은 자원이용과 활용방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社會的相互作用을 통해 상호교환하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社會的相互作用方式이 자원이용에 중요한 작용적 요인이 된다. 마을단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마을 리더쉽의 존재형태와 역할수행, 조직의 운영방식 등 마을의 내적 구조와 기능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政府用役과 資金支援과 같은 政策的要因과 기상재해, 農外就業施設의 發生과 같은 우연적 외부환경적 요소에 의해 마을 經濟成長이 영향을 받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마을자원의 이용구조와 마을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작용요인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 3. 分析範圍

<그림 1>의 마을경제성장요인의 연계망에 나타난 요인들을 종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실

그림 1 마을경제 성장요인의 연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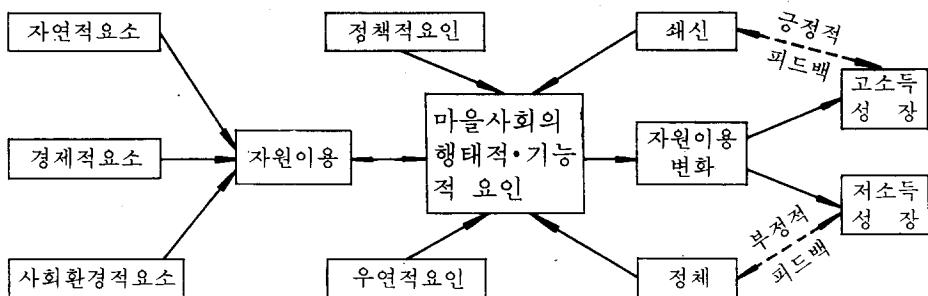


表 2. 분석범위와 내용

분석범위	분석내용
경제적 요인	• 소득구조, 재배작물과 토지이용구조
형태적 요인	• 합리적 영농에 대한 가치·태도
사회적 요인	• 마을일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 영농의 과학화수준과 배스미터 접촉 • 계층구조와 자원배분 • 사회적 상호작용 • 리더십구조와 역할기능 • 조직과 운영 • 정부지원과 마을공동사업
정책적 요인	

제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이다. 이에 本稿에서는 마을주민의 행태적 요인과 마을의 사회적 특성 분석에 중점을 두면서 자원이용에 따른 經濟的 要因과 政策的 要因도 아울러 분석하였다. 이들 分析對象의 구체적 분석 항목은 〈表 2〉와 같다.

### III. 研究方法

#### 1. 調査對象地域과 標本

忠淸北道 隱城郡 隱城邑内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行政里를 조사대상지로 하였다. 2개 마을 중 A 마을(高所得마을)은 음성군청에서 남서 방향으로 약 2km 떨어져 위치하여, 83년 말 현재 戶當平均所得이 6,326천 원으로 충북도내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았다. 內務部基準에 의한 마을수준이 福祉마을에 해당하는 마을로서 人蔘을

主所得源으로 하고 있다. B 마을(低所得마을)은 음성군청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83년 말 현재 戶當平均所得은 4,163 천원으로 음성군에서 중위권에 속하였다. 마을 발전수준은 自營마을이며, 특별한 주소득원이 없는 전형적인 담전작의 혼작형 마을이다. 이들 조사마을의 일반적 개황은 〈表 3〉과 같다.

調查對象者는 각 마을에서 치도자급 주민 5명과 일반주민 15명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치도자급 주민은 里長과 새마을指導者를 포함하여 開發委員中에서 선정하였고, 일반주민은 20~30대

表 3 조사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

	A 마을	B 마을
가구 수 (호)	78	48
농 가	64	42
비 농 가	14	6
호당 인구 수(명)	5.44	4.15
호당 경지 면적(ha)	0.909	0.944
논	0.332	0.415
밭	0.523	0.529
과수원	0.054	—
주요농기계보유(대/100호)		
경 운 기	29.5	62.5
동력 살분무기	1.3	4.2
탈곡기	15.4	10.4
양수기	6.4	10.4
경영주의 교육이수연수	6.8	6.0
공동재산 보유		
토지(평)	1,600	1,500
기금(만원)	1,000	30

表 4 조사문항의 측정 및 척도작성방법

조사항목	측정방법	임의척도작성방법
새로운 영농기술 평가	좋고 나쁨 정도에 따른 4구분 서열적 측정	각 문항마다 1번 서열에 4점, 2번 서열에 3점, 3번 서열에 2점, 4번 서열에 1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수를 구한 후 응답자 수로 나눠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새로운 영농기술 수용	수용속도의 빠르고 늦은정도에 의한 4구분 서열적 측정	
영농계획 수립 필요성	필요성 여부의 인지 여부에 의한 4구분 서열적 측정	
농사수지제산 필요성	필요성 여부의 인식 정도에 의한 4구분 서열적 측정	
마을일의 관심도	마을일 관심정도에 따른 4구분 서열적 측정	
마을회의 참석도	마을회의 참석빈도에 따른 4구분 서열적 측정	
마을회의 발언도	발언정도에 따른 4구분 서열적 측정	
마을의 결정사항 준수도	결정사항 이행정도별 4구분 서열적 측정	
마을 공동사업 참여도	참여정도에 따른 4구분 서열적 측정	
마을일의 지도자와 주민간 의논	의논 여부에 따른 4구분 서열적 측정	
지도자와 주민간 접촉·의논	지도자와 주민간 접촉정도에 따른 4구분 서열적 측정	
지도자와 주민간 개인일 의논	의논정도에 따른 4구분 서열적 측정	
마을일에 대한 지도자·주민의 참여빈도	참여정도에 따른 4구분 서열적 측정	
지도자와 주민간 협조	협조정도에 따른 4구분 서열적 측정	

총에서 5명, 40대 총에서 5명, 50대 이상 총에 서 5명을 선정하였다.

## 2. 資料蒐集方法

질문서에 의한 現地面接調查를 통해 1984년 9월 12일~20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을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통해 수집하였고, 마을총소득 규모와 토지 이용구조에 대한 자료는 군청 새마을과에 보관된 83년 새마을 간이조사표와 부대조사표를 통해 수집되었다.

## 3. 分析方法

집집된 자료중 주민들의 행태적 요인과 사회적 특성에 관한 변수에 대해서는 임의지수에 의한 척도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각 조사항목에 대한 임의척도 작성방법은 <表 4>와 같다.

## IV. 分析結果

### 1. 所得構造

조사지역의 所得規模와 所得構造는 <表 5>와

같다. 두 마을간의 戶當所得額을 기준으로 한 所得規模는 A마을(6,326천원)이 B마을(4,163천원)보다 2,163천원이 더 많았다. 이러한 所得隔差는 농업소득보다는 農外所得에 의해 일어났다. 즉 A마을과 B마을간의 農業所得의 격차는 957천원이었는데 비해 農外所得의 격차규모는 1,206천원이나 되어 2,163천원의 戶當所得隔差 중에서 農外所得이 점유하는 비율이 55.8%나 되었다.

한편 農業粗收入에 대한 소득격차 규모는 1,960천원이었다. 이를 栽培業과 畜產部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재배업에서는 A마을이 2,154천원이 많았으나 축산업부문에서는 B마을이 195천원이 많았다. 재배업중에서도 A마을은 B마을에 비해 전매작물에서 2,871천원이나 높았는데 이는 A마을에서 인삼재배로부터 오는 조수입이 호당 3,026천원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A마을에서 B마을보다 농업조수입 액이 월등히 많은 것은 인삼재배 때문이었고 이는 農外所得과 더불어 A마을이 B마을보다 월등한 소득규모를 發生시킨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表 5 1983년도 호당소득규모와 농업조수입 구조  
단위:천원, (%)

	A 마을	B 마을	A-B	
호당소득합계	6,326(100.0)	4,163(100.0)	2,163	
농업소득	4,547(71.9)	3,590(86.2)	957	
재배업소득	4,072(64.4)	2,594(62.3)	1,478	
축산업소득	475(7.5)	966(23.9)	△521	
농외소득	1,779(28.1)	573(13.8)	1,206	
농업조수입계	6,392(100.0)	4,432(100.0)	1,960	
재배업	5,402(84.5)	3,248(73.3)	2,154	
	식량작물	1,047(16.4)	1,437(32.4)	△390
농	채소작물	552(8.6)	1,133(25.6)	△581
업	특용작물	35(0.5)	197(4.4)	△162
조	과수작물	348(5.4)	15(0.3)	333
수	전매작물	3,223(50.4)	352(7.9)	2,871
임	기타작물	34(0.5)	26(0.6)	8
구	농업부산물	164(2.6)	89(2.0)	75
축	축산업	990(15.5)	1,185(26.7)	△195
조	한우·유우	696(10.9)	761(17.2)	△65
양	양돈	—	416(9.4)	△416
양	양계	279(4.4)	—	279
기	기타	14(0.2)	7(0.1)	7

表 6 토지이용구조(호당기준)  
단위: 평(%)

	A 마을	B 마을	A-B
총식부면적	2,688(100.0)	3,375(100.0)	△686
식량작물	1,316(48.9)	1,925(57.0)	△609
미곡	996(37.0)	1,244(36.9)	
백류	75(2.8)	38(1.1)	
두류	213(7.9)	563(16.7)	
서류	30(1.1)	35(1.0)	
잡곡	2(0.0)	45(1.3)	
채소작물	404(15.0)	903(26.8)	△499
근채류	31(1.2)	13(0.4)	
엽채류	43(1.7)	18(0.5)	
과채류	8(0.3)	6(0.2)	
조미채류	322(12.0)	846(25.1)	
특용작물	85(3.2)	373(11.1)	△288
참깨	29(1.1)	200(5.9)	
파수작물	161(6.0)	21(0.6)	140
전매작물	688(25.6)	163(4.8)	525
인삼	589(21.9)	—	
담배	99(3.7)	163(4.8)	
기타경제작물	34(1.3)	10(0.3)	24
토지이용률	98.6	119.2	

## 2. 栽培作物과 土地利用構造

<表 6>은 A마을과 B마을간의 栽培作物의 類型과 土地利用構造를 보여 주는 것이다. 戶當植付面積에 있어 A마을은 2,688평인데 비하여 B마을은 3,375평으로 B마을이 686평이나 많았고 土地利用率도 B마을에서 10.6% 포인트나 높았다. 作物別 植付面積은 A마을에서 식량작물의 식부면적이 1,316평이었으나 B마을은 1,925평으로 A마을보다 609평이 많았다. 고추 등 조미채류를 위시한 채소작물과 참깨 등의 특용작물 식부면적도 B마을이 A마을보다 각각 499평과 288평이 많았다. 그러나 高所得作目인 人蔘 등 專賣作物과 果樹, 기타경제작물의 식부면적은 A마을이 B마을보다 각각 525평, 140평, 24평씩 많았다.

한편, 주요작물의 식부면적 구성비율을 보면 A마을에서는 미곡(37.0%), 인삼(21.9%), 고추등 조미채류(12.0%)가 전체의 70.9%나 되었

는데 비하여 B마을은 미곡(36.9%), 조미채류(25.1%), 두류(16.7%)가 전체식부면적의 78.7%를 점유하였다.

이와 같이 栽培作物의 植付面積과 栽培作物類型에 있어 A마을은 B마을에 비해 전체적인 식부면적이 686평이나 적었지만 토지이용을 일반 경종작물보다는 人蔘, 果樹와 같은 高所得成長作目에 치중함으로써 土地利用의 高度化를 도모하고 있었다.

## 3. 農家의 經營類型

두 마을의 所得源別로 본 農家構成은 <表 7>과 같다. A마을은 「食糧作物+專賣作物」을 所得源으로 하는 構成比率이 55.1%이었는데 비하여 B마을은 「食糧作物+菜蔬作物」을 소득원으로 하는 비율이 70.8%나 되었다. 이외에도 A마을은 「식량작물+축산」, 「전매작물+축산」을 소득원으로 하는 가구의 비율도 각각 11.5%나

表 7 소득원별 가구구성

	A 마을	B 마을
식량작물+채소작물	—	34(70.8)
식량작물+과수작물	3( 3.8)	—
식량작물+전매작물	43(55.1)	7(14.6)
식량작물+축 산	9(11.5)	1( 2.1)
전매작물+축 산	9(11.5)	—
노 임	10(12.9)	5(10.4)
봉 급	4( 5.2)	1( 2.1)
계	78(100.0)	48(100.0)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소득마을에서의 農業經營構造가 식량작물의 경영형태로부터 점차 전매작물이나 축산경영형태로 변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저소득 마을에서의 농업경영구조는 식량작물과 채소작물의 경영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 4. 土地生產性

두 마을간 作物分野別 土地生產性은 〈表 8〉과 같다. 全體의인 10a당 土地生產性은 A마을이 611.7천원으로 B마을의 294.1천원보다 무려 317.6천원이 높았다. 또한 作目分野別 土地生產性을 보면 A마을은 B마을에 비해 特用作物分野에서만 낮았을 뿐 여타작물 분야에서는 높았다. 특히 A마을에서 전매작물의 土地生產性이 1,405.3천원으로 B마을의 650.0천원보다 무려 755.3천원이나 높았는데 이는 A마을에서 高所得作

表 8 작물분야별 토지생산성(10a 당조수입기준)  
단위: 천원

	A	B	A-B
식량작물	246.1	231.4	14.7
채소작물	409.6	376.3	33.3
특용작물	122.3	158.0	△36.7
과수	642.5	—	—
전매작물	1,405.3	650.0	755.3
기타작물	300.0	756.0	△456.0
전체	611.7	294.1	317.6

<sup>d</sup> 유실수 수입제외

表 9 영농기술의 수용과 합리적 영농수행의 가치·태도

	A마을	B마을	A-B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평가도	3.90	3.55	0.35
새로운 영농기술 수용도	2.95	2.65	0.30
영농계획 수립의 필요성	3.35	2.80	0.55
농사의 수자계산 필요성	3.05	2.55	0.50

目인 人蔘이 主宗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B마을에서는 담배만이 재배되었기 때문이었다.

#### 5. 合理的 營農行爲와 價值態度

두 마을간의 營農技術受容과 合理的 營農行爲에 대한 價值·態度의 差異는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새로운 영농기술이 항상 좋다고 보는가에 대한 A마을의 지수는 4.0점을 기준으로 할 때 3.90을 나타난 반면에 B마을은 3.55밖에 되지 않아 A마을에서 새로운 영농기술이나 방법을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 성향이 높았다. 새로운 영농기술수준에 있어서도 A마을(2.95)이 B마을(2.65)보다 높았으며, 農事일에 대한 計劃樹立의 必要性, 農事후 收支計算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營農行爲의 合理性에 대한 認識도 A마을에서 높았다.

#### 6. 마을일에 대한 關心과 參與

두 마을 주민들의 마을일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중심으로 한 行態의 特性은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A마을에서 마을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마을회의에 참석 도도 높으며, 마을회의시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

表 10 마을일의 참여와 관심도

	A마을	B마을	A-B
마을일의 관심도	3.80	3.40	0.40
마을회의 참석도	4.00	3.65	0.35
마을회의 발언도	2.65	2.40	0.25
마을결정사항 준수도	3.15	2.85	0.30
마을공동사업 참여도	3.15	2.90	0.25

表 11 영농과학화 수준 및 매스미디어 접촉

		A 마을	B 마을
영 <sup>1)</sup> 농 과 학 화	영농계획 수립 농가	25(39.1)	2( 4.8)
	영농일지 작성농가	25(39.1)	—
	영농의 수지 결산농가	20(31.3)	—
	영농서적 구독	22(34.4)	—
매 접 스 총 미 디 어	일간신문 구독	17(22.0)	6( 12.5)
	농민신문 구독	17(22.0)	10( 20.8)
	전화보급물	43(55.0)	1( 2.1)
	TV보급물	76(97.0)	48(100.0)

<sup>1)</sup> 농가에 대한 구성비율<sup>2)</sup> 총가구에 대한 구성비율

영하기 위해 발언도 많이 하며, 또한 마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준수행위도 B마을보다 높았다.

### 7. 營農의 科學化水準과 매스미디어의 접촉

營農의 科學化水準과 매스미디어의 접촉에 있어 두 마을간의 차이는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A마을은 농가 64호 가운데 營農計劃을 수립하며, 營農日誌를 작성하는 비율이 각각 39.1%씩이나 되었는데 비하여 B마을에서는 4.8%에 해당하는 2호의 농가에서만 營農計劃을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A마을에서는 농사를 지은 후 費用과 收益을 計算하고, 새로운 營農技術과 農事情報를 얻기 위해 營農書籍을 구독하는 비율도 각각 31.3%와 34.4%나 되었다. 새로운 생활정보와 각종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접촉에 있어서도 A마을은 B마을에 비해 신문구독률이 높았으며, 특히 전화보급율에 있어서는 55.0% : 2.1%로 현저한 차이가 있

었다.

### 8. 階層構造와 資源分配

두 마을간에 階層構造와 資源分配을 중심으로 한 社會的 特性은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A마을의 階層構成은 小農層(1.0ha 미만)과 中農層(1.0~2.0ha)과 大農層(2.0ha이 상)이 52.0% : 32.8% : 17.2%로 되어 있고 B마을은 57.1% : 35.7% : 7.2%로 되어 있어 A마을에서의 大農層의 구성 비율이 높았다. 한편, 階層別 土地資源의 配分率을 보면 A마을은 小農, 中農, 大農層간에 19.1% : 38.5% : 42.4%의 비율로, B마을은 36.4% : 47.1% : 16.5%의 비율로 土地資源이 配分됨으로써 A마을이 B마을보다 階層간 土地資源이 不平衡的으로 配分되면서 大農層에 편중되었다.

### 9. 社會的 相互作用

두 마을간에 마을일이나 개인적 일을 중심으로 주민과 지도자간에 이루어지는 社會的 相互作用의 특성은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A마을은 B마을에 비해 마을일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 배분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지도자와 주민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뿐더러 A마을은 개인적인 일을 지도자와 의논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B마을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表 12 계층구조와 토지지원 배분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ha 이상		계	
	가구수	면적	가구수	면적	가구수	면적	가구수	면적	가구수	면적	가구수	면적	가구수	면적
A 마 을	15 (23.4)	10,800 (5.1)	17 (22.6)	29,846 (14.0)	15 (23.4)	52,284 (24.6)	6 (9.4)	29,670 (13.9)	7 (10.9)	47,500 (22.3)	4 (6.3)	42,600 (20.1)	64 (100.0)	212,700 (100.0)
B 마 을	4 (9.5)	3,737 (2.7)	20 (47.6)	45,801 (33.7)	7 (16.7)	23,356 (17.2)	8 (19.0)	40,685 (29.9)	3 (7.1)	22,331 (16.5)	—	—	42 (100.0)	135,910 (100.0)

表 13 상호작용의 내용

	A 마을	B 마을	A 마을	B 마을
마을일에 대한 지도자와 주민간의 의논여부	3. 703. 400. 30			
마을일로 지도자와 주민간의 접촉·의논빈도	3. 453. 350. 10			
개인일에 대한 지도자와 주민간의 의논빈도	3. 253. 000. 25			
마을일에 대한 지도자와 주민의 참여빈도	3. 952. 951. 00			
지도자와 주민간의 협조정도	3. 302. 850. 45			

### 10. 리더쉽構造와 役割機能

두 마을에 있어 70~84년까지 里長, 새마을지도자, 농협총대로 일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마을지도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 배경은〈表 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도자의 平均教育年數에 있어서 A마을은 11.6년인데 비하여 B마을은 9.0年으로 A마을이 2.6년이나 많았다. 또한 A마을의 지도자 가운데는 새마을협동장을 수상한 사람이 2명이나 있었고,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회사원 경력소유자가 2명이나 되었는데 비하여 B마을에서는 사회적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두 마을간에 역할수행별 지도자 자원은〈表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A마을에서는 마을을 위한 어떤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해보고자 제안하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表 15 역할수행별 마을지도자 수

	A 마을	B 마을
마을일의 계획가	3	2
농사기술의 전파자	2	1
주민협동을 위한 조정자	3	2
가격 및 시장 정보 제공자	1	1
외부 대변자	2	1

있는 지도급 인사가 3명이나 있었는데 B마을에는 2명밖에 없었다. 새로운 농사기술이나 방법을 마을 주민에게 알려주는 役割을 수행하는 사람도 A마을에는 2명이나 있었는데 B마을에는 1명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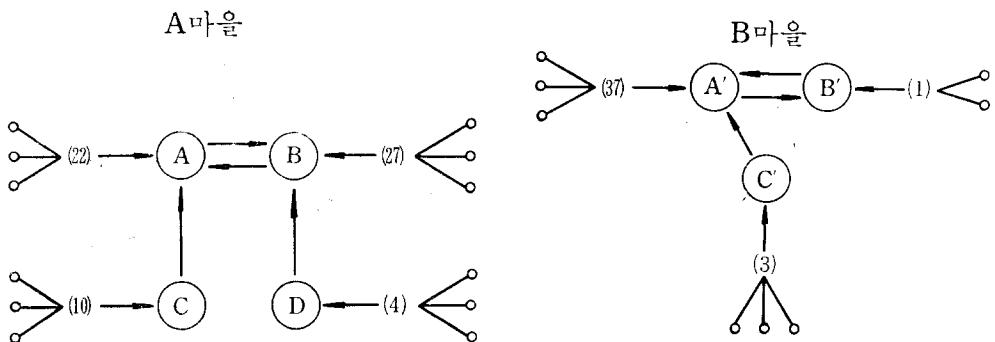
이외에도 마을주민간에 갈등이나 대립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도 A마을에는 3명이나 있었는데 B마을에는 2명밖에 없었다. 대변자 역할을 하고, 농산물의 가격 및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자도 A마을에는 각각 2명과 1명씩 있었으나 B마을에는 1명밖에 없었다.

마을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을 리더쉽을 중심으로 두 마을간에 리더쉽구조를 살펴보면〈그림 2〉와 같다. A마을의 리더쉽構造는 A, B, C, D의 4명으로 형성되었는데 비하여 B마을은 A', B', C'의 세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마

表 14 마을지도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A 마 을	B 마 을	비 고
새마을지도자	연 령	46.0	53.0	A마을 지도자중 협동장 수상자 2명. 공무원경력소유자 1명
	교 육 이 수 연 수	13.0	6.0	
	경 영 규 모	4,525	2,000	
리 장	연 령	52.0	41.2	A마을 공무원경력자 1명, 회사원 경력자 2명
	교 육 이 수 연 수	10.0	10.8	
	경 영 규 모	3,250	4,500	
농 협 총 대	연 령	48.0	49.5	A마을 공무원경력자 1명
	교 육 이 수 연 수	11.8	6.0	
	경 영 규 모	6,000	3,500	
전 체	연 령	48.6	44.8	
	교 육 이 수 연 수	11.6	9.0	
	경 영 규 모	4,700	3,938	

그림 2. 리더쉽 구조



( )내 숫자는 선택한 가구수임.

을의 리더쉽구조에 특징적인 것은 A마을에서는 네 사람의 리더 가운데서도 A와 B에 리더쉽이 공평하게 배분되면서 집중되어 있는데다 이들간에 상호선택이 이뤄짐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B마을에서는 세 사람의 리더 중에서도 특히 A' 한 사람에게만 권력행사가 집중되고 있어 지도자들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 이들 리더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A 마을의 리더 A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생활을 하다 고향에 돌아와 새마을 지도자를 하던 중 그 공로가 인정되어 새마을협동장을 수상받은 사람으로 현재는 1만여 평의 농사를 지으면서 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B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다 귀향한 후 7년째 이장을 맡고 있다. 이에 비하여 B마을의 A'씨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였고 지난 71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 11. 組織構成과 主要活動內容

조사마을의 마을내 주요 組織과 그 活動內容은 <表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A마을에는 전 주민이 모여서 前年度의 예산집행을 결산하고 아울러 신년도의 마을사업계획과 예산 및 노임을

表 16. 조직구성과 활동내용

조직명		주요 활동 내용
A 마 을	마을총회	전년도결산보고, 신년도사업계획, 예산승인, 임원 및 지도자선출
	개발위원회	마을공동사업결정
	청년회	마을애경사시 노력봉사
	인삼작목반	기술교育 및 선견지견학
	마을금고	마을기금운영(1,000만원 정도)
B 마 을	태동회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등 선출
	개발위원회	마을공동사업결정

결정하고, 이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등 마을의 중요사에 대해 의논하는 마을총회와, 마을공동사업의 추진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을 주축으로 마을애경사시 노력봉사를 해주는 청년회, 선견지견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기술향상을 위해 반원간에 활발한 정보교환이 있는 인삼작목반, 천만원에 달하는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금고의 조직활동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B마을에도 마을총회인 대동회,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그 활동은 극히 저조하였다.

### 12. 政府支援과 마을共同事業

지난 1972~83년에 걸쳐 두 마을에서 받은 政府의 資金支援 規模와 이를 기초로 추진했던 마

表 17 연도별 지원금과 사업내용

단위 : 천원

	A 마을		B 마을	
	지원금액	사업 내용	지원금액	사업 내용
1972년	400	소교량(5m), 석축(60m), 하수구(120m)	—	—
1973	—	—	—	—
1974	400	소교량(6m)	953	잔이급수(40호)
1975	1,600	소하천(10m), 하수구(200m)	1,000	창고(30평)
1976	4,034	농로(500m), 마을회관(40평), 잔이급수(70호)	—	—
1977	—	—	—	—
1978	—	—	—	—
1979	—	—	—	—
1980	—	—	—	—
1981	—	—	—	—
1982	15,000	진입로포장(650m)	1,500	마을회관(35평)
1983	2,200	진입로포장(120m)	—	—
계	23,634		3,453	

을공동사업의 내용은〈表 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A마을은 1982년도에 15,000천원의資金을 支援받은 것을 위시하여 6次年度에 걸쳐 총 23,634천원의支援을 받았다. 이에 비하여 B마을은 3次年에 걸쳐 3,453천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 V. 要約 및 結論

本稿는 마을간 經濟成長隔差要因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經濟的 成長度가 높은(高所得) 마을과 그렇지 못한(低所得) 마을을 각각 1개씩 사례 마을로 선정하여, 이를 마을간에 經濟的, 行態的, 社會的 및 政府支援程度에 있어 어떠한特性과 차이가 있나를 살펴보았다.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고소득 마을은 저소득 마을에 비해 農外所得의 構成比率이 높았으며, 農業所得에 있어서도 高所得成長作目의 점유비율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高所得 마을은 米麥 종

심으로부터 果樹, 人蔘과 같은 高所得成長作目 중심으로 土地利用構造가 변화되고 있었다.

高所得마을 住民들은 새로운 營農技術에 대한 긍정적 認識度가 높으면서 이를 빨리 受容하며, 營農도 計劃的이고 合理的으로 하려는 價值·態度가 低所得마을 주민들보다 높으면서, 마을일에 대한 關心度와 參與度도 높았고 마을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自身의 意思를 반영하려는 경향이 현저하였다. 또한 高所得마을은 營農書籍購讀, 營農計劃의樹立, 營農日誌作成, 農事의 收益性計算을 하는 등 營農의 科學化水準이 높았고, 새로운 生活情報와 各種 農事情報에 접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의 활용도가 높았다.

高所得마을에서는 住民과 指導者간의相互作用이 보다 빈번하였고 마을일뿐만 아니라 個人的인 일에 대해 指導者와 的논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高所得마을 指導者の 교육수준이 低所得마을 指導者보다 높았고, 마을일을 중심으로 計劃家, 農事技術傳播者, 代辦者, 調整者 등의 役割遂行을 하는 指導者の 人的資源이 풍부하였다. 高所得마을에서는 마을資源의 效率的

利用・管理를 위해 마을住民의意思를 수렴할 수 있는 마을組織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政府의 財政的支援도 高所得마을에서 많이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本研究가 規模나 方法에 있어 한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정태적이고 平面的인 측면에서 社會・經濟的特性에 대한 實態만을 파악했다는 制約點이 있다. 따라서 마을간 經濟的成長隔差를 이해하기 위한 보다 학문적 차원에서 심층적이고 動態的인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環東, 「發展의 社會學」文學과 知性社, 1979.  
 金環東譯, 「經濟社會學」1965.  
 內務部, 「새마을운동통계자료」1983.  
 成昌煥譯, 「後進國經濟政策」1962.  
 申一澈譯, 「後進國의 將來」1963.  
 빈센트티드스웰, 「人文地理學」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2  
 S.H. Frankel, *The Economic Impact on Under-developed Societies*, 1953